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진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살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 통과! 통과! 넘기고 붙들지 마세요

### 아무 생각없이 편안해요

**문** 마음의 어떤 상태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눈앞에 큰일이 있으면 내내 그 생각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이용하여 공부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혼란스러워 차라리 다 치우고 명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머리가 아파와서 주인공을 새겨보려 하지만 늘 주인공이라는 글자만 떠오르고, 매번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되니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에잇, 모르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아무 생각도 하지 않던가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고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생각이 없다는 그 생각도 없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상태가 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상태 같아 겁나기도 해서 다시 제 의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제 마음상태가 바른 것입니까. 영동한 것입니까? 그 한순간이 바른 것이려면 늘 그 상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게 인력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가르침 주십시오.

**답** "이것은 꼭 이렇게 돼야 해!" "이렇게 해야 이것이 제대로 하는 거야." 하고 붙들고 있다가 한순간 그것을 놓은 바 없이 놓고 보니 마음이 후련해진 것이지요. 내가 늘 얘기하듯이, 내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해간다고 붙들고 있는 생각들을 앞뒤 없이 놓되,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에 믿고 놓아야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예 거둬지면서 근본에다 일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닌 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내 안의 근본에서 나를 공부시키기 위한 과제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신행회에 나오시는 보살님들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고난이 주인공의 나름이며,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하고 근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공부해 나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도리를 체득하려면 체험이 필요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스님, 자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너무 없어서 다른 분들처럼 분발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인지요? 그렇다면 저도 어떤 병에 걸린다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올바른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답**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좋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 공부할 재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다 세심하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

좋은 일 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또 그대로 따라옵니다.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뿐이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몸이 튼튼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과거의 업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수도 있죠.

그러니 모두가 내 한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 생각으로 즉시즉시 처리해 버리지 마시고, 내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믿고 맡기는 작업을 진실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본과 언제나 함께 하려면...**

**문** 저는 청년회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공부를 해나가면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서는 근본을 부(父)로 마음내는 현재의 식을 자(子)로 표현을 하시면서 자가 부를 믿고 따르지만 하면 부는 언제나 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나의 근본인 부가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나의 잠재의식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림 · 최주현

###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마음 지켜보도록 사소한 것 하나도 내면에 놓아서 해결

을 알아야 바깥으로 닦이는 과제도 과제거니와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서건 일어나는 내 마음을 지켜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겠지요. 나는 지금 이 생활에 대해 얼마나 감사의 회향을 하고 있나. 나는 공부나 오히려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것도 살펴보고, 마음은 허공이어서 그대로 탁 되었으면서도 머리털 한 오라지 보다 더 섬세하기도 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요런 병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가 이 병으로 인해서 공부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안 되는 걸 가지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다고 붙들기도 하구요. 그러나 붙들지 마세요. 그 모든 걸 한 찰나에 그냥 넘기세요. 통과, 통과하고 넘기세요. 본래 이 세상 평등 진리는 그냥 통과, 통과, 통과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이 그냥 놓고 돌아 가는 겁니다. 이게 공부 아니겠는가 하고 붙들고 있다면 그것도 공부라는 말에 매이는 형국이지요. 여러분이 공부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는 이 마음의 길을 한걸음 한걸음 걸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아, 공부를 정말 잘 해야 하는데 하는 그 마음조차도 놓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병이 바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공부하지 않나 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 병이 길어져서 더 고통을 받게 되죠. 왜 통과, 통과하고서 닦이는 것에, 스스로 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놓지 않으면 안돼요.

여러분,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릅니다. 이 생각이 말입니다. 오솔밭에 도둑질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자기 의식들이 그대로 따라주고요, 오늘은

스님, 언제쯤이나 모든 일을 저의 부와 자유스럽게 함께 할 수 있을지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부와 자가 상봉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멀리에 있는 것만 같은 나의 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답**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가 동쪽간의 동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까.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걸 가만히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똥을 닦아 주는 똥 한 덩어리 자식을 만나는 병이 없어요. 자물(自佛)이 자기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손살피고 돌보고 있는데 자기가 똥보는 똥을 몰라서 그렇죠.

불(佛)은 우주를 싸고 있는, 전체 소용돌이를 쥐고 있는 부(父)입니다. 그러니 자는 부를 따라야죠! 첫번째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모르니까 부를 따라서 들어가되,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밥을 주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되어서 다 처리를 해주죠. 그때는 이걸 서로 넘나들고 표현을 해도 되죠. 자는 부에게 넘나들고 부는 자에게 넘나들게 되니 나중에는 합일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넘나들어도 자기가 모르니까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넘나들면서 온갖 처리를 해도 모르고 모두 사는 거죠.

부는 자에게로 자는 부에게로 넘나드는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무조건 자는 부를 믿고 감사하고, 또 어떤 요구를 해도 거기에 하고, 병이 나더라도 부에게 낫게 하고 모든 걸 거기에 대고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부에

맡고 맡기다 보면 자연히 부와 친근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부어다 모든 걸 일임한 게 아니라 안돼요.' 이러거든요. 실사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가 자에게 실험을 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아야만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의심이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의심을 하면서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붙들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자가 결합이 되면 자기가 말하는 게 그대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말할 때 한생각 내지 않고 그냥 말을 했어도 그냥 쓸 수도 있어요. 무심코 그냥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주장자가 잡히게끔 모든 것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자는 부를 믿고 모든 것을 일임하고 나가세요. 그래야 부와 자가 하나로 들어서 무(無)의 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과론 납득이 되질 않아요**

**문** 불교에서는 내가 결국 부처라고 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부처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데가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빌면 병도 낫고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부처님은 신이 아닌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처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인과론을 중시하는데, 현생을 보면 전생을 알 수 있고 또 역시 현생

을 보면 다음 생을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병을 갖고 태어나는 애들은 전생에 그리 많은 죄를 지었던 겁니까? 그렇게 맑고 착한 아들이 업보로 인해 그런 힘겨운 운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잘 납득이 가질 않아서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답** 자력을 키우지 않고 부처님이 무엇을 해결해 준다고 믿고 어떤 위대함을 해준다고 믿고 믿고 믿고 빌러 다니는 것은 쪽박을 들고 얻으려 다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 안의 무한한 보배를 모르고서 말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국한되게 어떤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진리에요. 그러니까 불과 법, 승이 다 한데 합쳐서 자성 삼보와 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명도 불이 아니고, 몸도 불이 아니고, 마음도 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법당에 와서 일정을 하든지, 삼정례를 하든지, 칠정례를 하든지 간에 내 몸은 부처님 법과 같고, 내 마음 낸 것은 부처님 법과 같고, 부처님 형상은 내 모습과 불이 아니라고 그랬죠. 항상 그렇게 하면서 법당에 들어와서는 부처님에 하나로 합치고, 나갈 때는 자신으로 한데 합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 자기 형상을 무시하면 자기가 무시가 되는 거니까 항상 부처님을 무시하지도 않게 되고 부처님을 무력대고 때릴지도 않게 되죠. 삼천년 전 부처님이다 할지라도

도 바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진실을 알고 본다면, 부처님이 너무 위대해서 눈물이 날 지경일 겁니다.

그리고 인과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아이가 불집계를 가지고 놀다가 같이 놀던 아이 정수리를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예요. 불집계를 가지고 놀다가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죽은 거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수리, 그 애가 지금 이 애를 그렇게 죽였더라구요. 썰매 꼬챙이로. 그러니까 이게 피장파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집에서 만약에 보상을 해라 될 해라 이란다면 도무룩이 돼 버리고 원수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죽인 건 살생의 문제를 넘어서 인과성으로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업보로 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 다가오는 모든 것에서 자유스러워 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주인공을 믿고, '당신이 가다가 얼어지게 했으면 당신이 일어나게 해야지, 누가 일으켜 주는 게 아니잖아. 전생에 내가 살면서 악업, 선업을 지었다면 당신 자리에서 악업, 선업도 지은 거니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당신이야' 하고는 턱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되면 우리가 지수화공으로서 지수화공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 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공부를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름대로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하고 모든 것을 수긍하면서 배워 가신다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우 받고 사실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나의 근본을 찾는 공부를 진실히 해서 나와 남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놓고 잊어버려야 하는 겁니까**

**문** 스님께서서는 항상 주인공에 믿고 맡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고 맡겨 놓으라는 말씀은, 경계나 문제가 닦쳐왔을 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당신이 한 것이니 당신이 해결해, 당신이 진정로 있다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봐"하고 주인공에게 맡기고 아주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또 맡겨 놓은 경계와 문제가 다시 생각났을 때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어"하고 맡겨 놓고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스님께서 꽃이 사들한 것을 보시고 '싱싱한 꽃으로 역할을 해 보라' 하시고 잊어버리시라고, 몇 일 뒤에 가보시니 꽃이 싱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만, 주인공을 놓고 맡긴다는 것은 주인공에게 닦쳐온 경계나 문제를 관하고 아주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경계나 문제는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하겠지요, 잘되겠지요" 하고 잊어버리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경계나 문제는 애착심이 있어서, 잊어버리지 못해서 또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오고 하니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지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중요해 또 여쭙어 봅니다.

**답**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록 놔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 모든 일체 만물이 다 공했으니 그 공한 자리에서 놔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놔버리는 자는 누구고 '놔라'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놔버려라' 하는 자도 공이요 '놔버린다' 하는 자도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했으면서 말을 한 사이가 없이 소리만 냈을 뿐이지 말을 한 사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20면으로 계속

가짜본 인격을 보듯 고골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신 28쪽  
값 6,000원  
이시아문